

## 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참석결과

### □ 개요

- (일시/장소) '22.3.7(화)~3.9(목) 17:00~02:00(한국시간) / 화상회의
- (참석자) EU, 일본, 미국, 한국\* 등 16개 CPC, 옵서버 등 약 110명  
\* 해수부, 원협, 업계 등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심수빈 사무관(수석대표) 외 7명
- (주요의제) 동부 대서양 참다랑어 조업계획 검토 및 승인, 참다랑어 할당기준, 참다랑어 비상상황 절차 등

### □ 회의 주요내용

#### 1. 조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주요 사항
    - 미국은 많은 CPC 조업계획서들에서 새로운 권고 내 양식에서 요구되는 통제 당국 연락처 정보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여 수정됨
    - 시리아는 회의에 불참하여 서면으로 조업계획을 승인하기로 하고, 나미비아는 조업계획 미제출로 '23년에 조업 불가 결정됨
    - 시리아와 나미비아를 제외한 15개 CPC 조업계획서 승인
  - 아국 관련
    - EU는 온대해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선박에 의한 혼획 가능성을 질문하였고, 아국은 온대해역 내 참다랑어 조업선 외 다른 아국 조업선이 없고, 열대해역에서는 지금까지 참다랑어 혼획이 없었다고 답변함
    - 2023년 아국 조정쿼터 = 278.524톤\*
- \* (초기 쿼터 221톤 + '22년 미소진 이월 7.724톤 + 대만 전배 50톤 - 혼획 0.5톤 )

## 2. 동부 참다랑어 할당

- (논의배경) 작년 연례회의에서 일부 CPC들\*이 TAC 증가분의 할당방식에 불만을 제기하여 이번 회의에서 쿼터 할당 논의를하기로 합의

\* 영국, 알바니아, 이집트, 한국 등 소규모 쿼터를 가진 CPC들

- (주요의견)

CPC	주요내용
EU	법적으로 유효한 할당은 오직 14-04이고 동 권고가 유지되어야 함 현 관리기간 중 할당 변경은 불가 다음 관리기간을 위한 할당 논의 과정을 수립하는 것은 수용 가능
모로코	과거에 자원 회복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고 다시 희생하는 것은 수용불가 업종별 할당 변경이 자원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일본	TAC 증가 시 증가분만 재분배하고, TAC 감소 시에는 일괄 감축
튀니지	톤수가 아닌 비율 논의 필요. 각자 수용 가능한 최대·최소 수치 제안
튀르키예	14-04가 아닌 22-08을 토대로 논의 필요. 역사적 어획 고려 필요
알제리	할당 비율 외 할당 순위도 중요. 자원의 회유 경로 고려 필요
이집트	14-04가 아닌 새로운 기준 수립 필요. 역사적 어획, 어업개발권 고려 필요
노르웨이	14-04는 불투명한 방식으로 합의되었고 기준연도 적용이 불공평했음. 새로운 할당 수립이 필요하고 공정한 할당이 수립될 때까지 불만을 제기할 것
영국	이번 TAC 증가분을 연안 공동체 어업개발 필요를 위해 재분배 필요
한국	쿼터 보유량에 따라 쿼터 증가비율 차등 적용 필요

- (논의결과)

- 현시점에서 새로운 할당기준 수립 및 남은 관리기간에 대한 할당 변경에는 합의 미성립
- '26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관리기간에 적용되는 TAC 변동분의 할당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
- 금년 연례회의 및 내년 3월 회기간 회의에서 할당 논의 재개
- CPC들은 각 할당 수치를 담은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이 요구

### 3. 참다랑어 비상상황 절차

- (논의배경) 작년에 채택된 참다랑어 관리절차(MP) 내 주요 요소인 비상상황\* 규정을 금년 연례회의 채택을 목표로 작업하기로 함

\* 비상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 MP 적용을 중단하는 상황) 발생(초안):

- 1) 자원상태가 MP의 맥락에서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2) MP 적용을 위한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거나 더이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
- 3) 총어획량이 MP를 통해 수립한 TAC를 초과하는 경우

- (주요문답)

구분	질문	과학위 답변
의장	북방 날개다랑어 MP와 달리 참다랑어 MP는 지표가 10개인데, 2-3개 지표만으로 비상상황 발생을 판단하는 것은 적은 수가 아닌가?	지표별 가중치가 있고, 보다 중요하게 검토되는 지표들이 있음
EU	한쪽 해역 지표 결과가 다른쪽 해역 관리조치에 미치는 영향은?	MP를 해역별로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 비상상황으로 판단되면 MP 전체가 재검토됨
	비상상황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표의 이탈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는가?	5%, 2.5%는 확정된 것이 아님. 예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 바로 비상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검토하게 됨
노르웨이	어업 의존지표보다 어업 독립지표에 보다 높은 가중치 부여 필요	독립지표는 가변적이고, 예상 범위 밖에 분포할 가능성이 더 높음
미국 캐나다	패널2와 과학위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절차 수립 필요	의견을 가능한 한 일찍 제공 필요 (의장) 추가 회의 개최는 불가

- (논의결과)

- CPC들은 3월말까지 비상상황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출
- 과학위에서는 위 의견을 토대로, 초기 과학조언을 6월말까지 제공
- 의장이 절차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CPC들에게 회람
- 의장은 초안에 대한 CPC 의견을 반영한 2차 초안을 과학위에 전달
- 과학위는 9월 SCRS 회의에서 최종 과학 조언을 도출
- 의장은 최종 과학 조언을 토대로 절차 초안을 수정하여 회람

## 4. 기타 논의 사항

### ○ 축양장 봉인 띠<sup>\*</sup>(seal)

\* 어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축양장 가두리 입구를 폐쇄하고 부착하는 띠

- CPC가 사무국에서 보낸 ICCAT 봉인 띠가 아닌 국내 제작 띠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ICCAT 띠는 지역옵서버(ROP)에게 배포되는 것이고, CPC 당국은 국내 제작 띠를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

### ○ 축양 능력(farming capacity)<sup>\*</sup> 증가

\* 선망선 등으로 야생에서 포획된 참다랑어를 축양장에 투입할 수 있는 최대량

- EU는 '19년 이후 TAC가 43%('19년: 28,200톤→'23년: 40,560톤) 증가하였으므로 '08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는 축양 능력<sup>\*</sup> 변경 필요성을 제안
- 의장은 현재 모든 CPC들의 합산 축양 능력이 TAC와 유사한 수준인 40,646톤이므로 투입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언급

### ○ 인공 부화 참다랑어 통제

- 카보베르데는 참다랑어 인공 부화 시범사업<sup>\*</sup> 실시 계획을 설명하였고 이집트도 동일한 사업 계획 의사를 표명

\* 사적 펀딩 및 운영(노르웨이)에 의한 사업으로, 스페인 등에서 인공적으로 생산한 알을 수입하여 육상에서 부화시켜 약 20kg 체중이 되면 바다로 이전·축양한 후 수출

- 의장은 현재 ICCAT은 참다랑어 인공 부화에 관한 통제 조치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인공 부화에 관한 조치 수립 논의가 필요하고, 인공 부화한 어류를 수출하고자 하면 축양 계획 제출 및 승인과 eBCD 조치 이행이 필요함을 언급
- (향후 일정) 6월 IMM 회의에서 통제 조치 논의 → 11월 연례회의에서 통제 조치 합의 → '24년 6월 eBCD 기술작업반 검토